발행일: 2013년 3월 22일 금요일
통권 2013-01호

투웨이 유학 원 News Letter

TWO WAY 투웨이 유학원 CANADA & USA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8-7 베터라이프 빌딩 410호, Tel:02-3444-9090, 070-8692-9090, Fax:02-3444-5808
캐나다웹사이트: www.uhakca.co.kr 미국웹사이트 www.twus.co.kr 이메일: bgchae@naver.com

FROM TWOWAY

"현재 캐나다에서 열심히 생활하며 공부하는 투웨이 학생들에 관한 소식을 전하며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보다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뉴스레터를 준비하였습니다."

투웨이유학원 체험강원장

올해 캐나다와 미국 서부의 화창한 날씨는 우리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눈도 조금 왔지만 대부분 맑은 날씨를 유지해 외부 활동이 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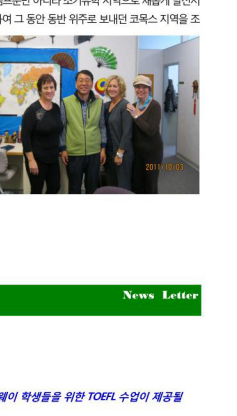
건강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가 적은 생활 때문인지 아이들의 키가 부쩍 자랐습니다. 꼬마 혜민이도 자기 키가 많이 컸다고 엄청 자랑하더군요. 스키를 타다 다친 영래를 제외하곤 모두 건강하게 겨울을 즐기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한 학생들은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올 'A' 를 받은 학생도 많고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다들 좋은 성적을 거두어 본인은 물론 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안 좋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을 못 본 경우 똑같은 문제로 다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이해시키고 넘어가게 하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학기에 3~4과목을 하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있고 노력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미국과 캐나다의 긍정적인 교육 방식이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번 6월에 끝나는 2학기에는 모두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라겠습니다.

올 여름은 더 많은 시간을 영어에 노출 시키고 더 적합한 캠프를 고를 수 있도록 4가지 여름 캠프를 준비하였습니다. 성격과 나이, 영어능력, 캠프의 목적 등에 따라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지역은 한국인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특히 캐빈캠프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미국 스포캔 지역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준비로 캠프뿐만 아니라 조기유학 지역으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유학의 다양성을 위하여 그 동안 동반 위주로 보내던 코록스 지역을 조기유학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보증하는 지역이고, 안전한 교육 장소로 적합한 코록스 지역에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보람되고 아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투웨이 유학원 원장

목차

From 투웨이 1
투웨이 공지사항 2
Best Student 2
투웨이 공항 스케치 3
Homestay Family 소개 3
투웨이 여름캠프 (2012) 4
투웨이 겨울캠프 4
투웨이 학생등 이모저모 5
투웨이 한국학생의 날 6
코록스 밸리를 소개하며 6
투웨이 미국 (스포캔) 7
투웨이 유학 설명회 8
투웨이 동정 8

TWOWAY 공지사항

1. 2013년 여름방학 캠프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웨이 유학원 홈페이지 www.twus.co.kr 또는 www.uhakca.co.kr를 참고하시고, 신청 및 상담은 전화 02-3444-9090 또는 070-8692-9090 으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2. 3월 말 SD71 코록스밸리 교육청의 YounHee Edmonds 선생님이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3월 마지막 주에 부모동반 유학을 위한 설명회와 개별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3. 7월~8월 투웨이 학생들을 위한 캐나다 정규과목 학점이수 On-line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귀국한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 개설될 과목들을 미리 온라인으로 이수함으로 학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졸업학점 관리를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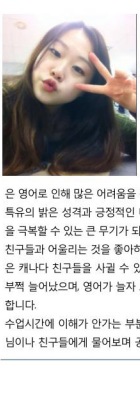
4. 7월~8월 투웨이 학생들을 위한 TOEFL 수업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한국에 귀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플 시험 준비를 진행합니다.

Happy Birthday 생일 축하

- 3 March : 연재 (3/4)
- 4 April : 예서 (4/3), 승찬 (4/6), 리지 (4/9), 기려 (4/24)
- 5 May : 정은 (5/9)
- 6 June : 영식 (6/9), 창영 (6/24)
- 7 July : 영인 (7/12), 우하 (7/20)
- 8 August : 종훈 (8/18), 예슬 (8/26)
- 9 September : 건우 (9/4), 주영 (9/6)

THE BEST STUDENT : 박리지 (L.V. ROGERS)



이번 달의 우수학생으로 넬슨 명문 L V. Rogers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리지 학생을 선정하였습니다.

박리지 학생은 2010년 12월 말 캐나다 유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리지 역시 갑자기 변해버린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지 특유의 밝은 성격과 긍정적인 마인드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리지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캐나다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영어 실력이 부쩍 늘어났으며, 영어가 늘자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보며 공부에 점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 학기 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A' 를 받아 최고의 한국 학생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항상 공부를 잘 못한다고 겸손해하지만 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스스로 노력하는 모범적인 학생이기에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믿습니다.

리지는 요리에도 관심이 많아서 홈스테이 집에서도 가족들을 위해 가끔씩 한국 요리를 만들어 다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집에서 직접 만드는 손만두는 캐나다 사람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또한 한국학생의 날 행사에는 어김없이 일찍 참석해 친구들과 동생들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는 다재 다능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리지야, 늘 해왔던 것처럼 이번 학기에도 밝은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 볼 수 있기를 기대할게!!"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단지 그 책의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
- 아우구스티누스 -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 할 수 있어 항상 행복합니다.
투웨이유학원 장효성 실장

TWOWAY 공항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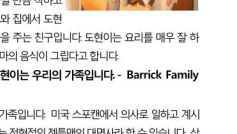
세계의 여러 나라를 다녀온 아이들도 있고 이번이 처음인 아이들도 있지만 이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 가득한 눈빛입니다. 아직 가족을 떠나 혼자서 생활하기엔 어린 학생들도 있어 부모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나이**와 **타국의 문화와 언어를 흡수하는 능력**은 반비례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똑똑한 우리의 아이들은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잘 적응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정을 가진 멋진 학생들입니다.

(Incheon airport) (Castlegar airport)

HOMESTAY FAMILY 소개

병호와 형준이가 3개월 동안 함께 했던 Heykamp 가족과 Main 가족(아래) 입니다. 병호와 또래인 3남매들과 하루하루 재미난 생활을 보냈던 병호는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한국 학생의 날 행사에 3남매를 데려와 삼겹살 떡볶이와 라면을 함께 먹으며 매워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기억 납니다.

형준이네 홈스테이 가족은 스포츠를 무지 좋아합니다. 스키를 좋아하는 형준이와 함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스키장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이제 형준이의 스키 실력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홈스테이 아빠는 신라면을 좋아해서 가끔 형준이와 함께 라면을 끓여 드십니다. 투웨이 홈스테이 부모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머님을 'Mom', 아버님을 'Dad'로 불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도현이 홈스테이 가족인 Barrick Family 입니다. 홈스테이 아빠는 한국 라면을 좋아해서 밥까지 말아서 드신다고 합니다. 도현이와 동갑내기인 브리아나는 학교에서도 친사라고 불릴 만큼 착하고 밝은 아이라 학교와 집에서 도현이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도현이는 요리를 매우 잘 하시는 홈스테이 엄마의 음식이 그립다고 합니다.

'도현이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 Barrick Family

아래는 대건이네 가족입니다. 미국 스포캔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시는 홈스테이 아빠는 전형적인 젠틀맨의 대명사라 할 수 있습니다. 상냥하고 친절한 홈스테이 엄마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 재료들만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2월 말에 가족 여행으로 플로리다주 디즈니 월드에 다녀온 대건이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 받았습니다.

TWOWAY 여름캠프 (2012)

Real English Fun Ca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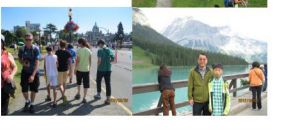
승찬, 종화, 성준이가 승마 체험을 마치고 기분 좋은 표정으로 찰~칵! 키가 큰 승찬이는 지금도 캐나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English Adventure Camp

지난 여름 파일바이블 캠프에 참여했던 우리 학생들입니다. 캠프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원장님과 함께 밴쿠버와 록키 산맥도 여행하는 알차고 보람된 캠프였습니다.

English Intensive Camp

미국 Southside School 에서 발표 수업 중인 지성이. 캠프 참여 후 캐나다에서 지난 학기 까지 공부를 하고 지금은 잠시 한국에 머물면서 미국 유학을 준비 중입니다.



TWOWAY 겨울 스쿨링 캠프 (2012~2013)

재미있게 공부하는 스쿨링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자유분방한 분위기에 어색함을 보입니다. 이번 겨울 캠프에서는 한국의 딱딱한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자유롭고 재미있는 수업을 통해 협동심과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아 익숙해지는 우리 아이들의 뛰어난 적응력과 수학을 비롯한 전반적인 교과 공부에서 외국 아이들보다 우수한 학습 능력을 보여준 아이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Activity 활동

캠프기간 동안 미국과 캐나다 학생들은 정말로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스키,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눈썰매 등의 다양한 겨울 스포츠 활동과, 골프, 바이올린, 가리데, 온천 여행 등 재미난 액티비티를 즐겼습니다. 캐나다 여름 스포츠로는 수영과 카약, 레프팅 등이 대표 적이며, 이 외에도 축구, 야구, 농구, 승마 등 본인이 원한다면 한국에서 경험하기 힘든 어떠한 스포츠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액티비티 천국입니다. 한국과는 달리 학교 성적과 함께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참여하는 학생을 높게 평가하는 교육관이 자리 잡혀있기 때문에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이 존재하고, 또 중요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학생 여러분,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하여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학생이 되도록 합시다.

TWOWAY 학생들 이모저모

넬슨 지역 (Nelson)

올 한 해에도 많은 투웨이 학생들이 BC주 공립 고등학교 5위인 LVR(L.V. Rogers)과 Mt. Sentinel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학기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박리지 학생은 The honour role at LVR' 의 영광을 차지했답니다. 유학 초기 낯선 환경, 학교, 친구들 등 한국과는 사뭇 다른 생활 환경에 적응하려 애쓴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리지야, 이번 학기에도 힘내자!!"

Art에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연재. 6월에 졸업을 앞둔 모범생 영식이. 이번 학기부터 야구를 시작한 건우를 비롯해 넬슨 지역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보람찬 유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살모 지역 (Salmo)

이제는 Salmo Brother 로 유명해진 영래와 종훈이. 지난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 제작한 동영상이 그들의 인기 상승에 한 몫 했다고 합니다.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출연한 강남스타일 동영상은 살모 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넬슨과 크레스톤 지역에서도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음악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영래와 종훈이는 New Year's Day' 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초대받아 기타와 건반을 치며 노래하는 살모의 스타입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이 둘의 모습을 TV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크레스톤 지역 (Creston)

2012년 9월에 PCSS에 입학한 늦깎이 주영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무지 고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조금씩 올라가는 성적표를 보며 슬슬 공부에 재미를 붙여가는 모습이 너무나 대견합니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것이 없는 정은이는 크레스톤의 왕 언니라 불리고 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에게 공부를 비롯해 학교 생활의 모범이 되어주는 정은이는 PCSS 농구부 대표 선수입니다. 학교 대항 별 농구대회에도 참여하고 완전히 캐나다 학교 생활에 동화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활동하는 것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최고의 방법이란 걸 정은이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내 영인이와 이제 3개월이 되어가는 승찬이의 쑥쑥 늘어가는 영어 실력을 보며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버타 주 테이버 지역(Taber)

현재 캐나다 Taber 지역 공립학교 교환학생으로 공부중인 예슬이는 지난 학기 전교에서 3등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유명한 모범생이며 캐나다 학생들도 쉽지 않은 조기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학교 행사에도 인터내셔널 학생 대표로 참여하고 언제나 밝은 표정의 긍정적인 학생이라 주변에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달에 도착한 우하는 몇 년 전 캐나다 유학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도착한 첫날부터 캐나다가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슬이, 우하 파이팅!

한국인 없는 지역 투웨이 캐나다 조기유학

No Korean, Real Canadian

Twoway Canada 유학원은
캐나다를 중심으로 수년간의 조기유학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소의 유학 기간과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최대의 효과를 주구하는 유학 프로그램
EIS(English Immersion Study)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Play, Learn, and Grow Together !"

TWOWAY 한국 학생의 날

삼겹살과 떡볶이 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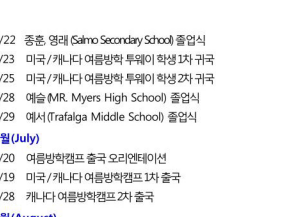
Nelson / Salmo

1월 5일(토)과 2월 9일(토) 쿠트니 교육청 산하 넬슨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겨울 캠프 학생들을 위해 "투웨이 한국 학생의 날" 행사를 개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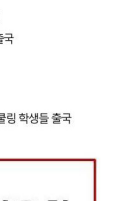
모두들 캐나다 현지에서 오랫동안 맛보지 못한 한국 음식에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배려이자 학생들 개개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만능 요리사 리지가 만들어준 김치 삼겹살 볶음의 맛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Creston

크레스톤 지역에서는 1월 6일과 2월 10일에 한국 학생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주영이와 윤선이는 언니들답게 나이 어린 동생들을 위해 삼겹살과 함께 김치도 맛있게 굽는 일일 쉐프가 되어주었습니다. 선배 학생들과 신입생들이 서로 어울려 얼굴도 익히고 대화도 하고 정보도 주고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4학년 혜민이의 해맑은 표정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코록스 밸리를 소개하며...



안녕하세요 민재 엄마입니다.
투웨이 유학원으로부터 조기유학생을 코록스까지 넓혀서 보내신다며 현지에서 살다 온 경험으로 글을 부탁 받고 무슨 이야기를 쓸까 한참을 고민한 후에 코록스 지역소개와 현지인들의 특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합니다.

먼저, 코록스밸리는 코록스, 코트니, 컴버랜드 3도시를 함께 부르는 명칭으로 도시경계 없이 바로 이웃해서 살고 있고 최고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스키를 여름에는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살다 보면 '이곳이 최고구나' 라는 감탄사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탠쿠버 섬에 위치해 있다고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낭만만한 크기의 섬이라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2년을 지내다 왔습니다. 이곳 고등학교 중에서 이름이 알려진 곳이 2~3곳 있는데, 모두 체력 규모가 있는 학교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대학을 곧장 보내는 곳으로 현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선택하고 오는 한국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 한 명 한 명이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합니다. 오시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캐나다인을 대해주면 그들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로 남아 줄 겁니다. 또 중요한 점 한가지는 이곳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보다 체력이나 사회활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온 한국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곳으로 오는 학생들은 이점을 생각해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면으로나마 제회가 보낸 코록스에서의 2년 동안 투웨이 유학원에서 여러 가지 신경 써주시고 관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그럼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투웨이 유학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TWOWAY 미국 스포캔(SPOKANE)

스포캔(Spokane) 지역소개

스포캔은 미국 북서부 워싱턴 주에 위치한 도시이며 인구는 약 50만 명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며 여름평균 26C와 겨울평균 -2C 정도로 사람이 거주하기에 매우 쾌적한 기후입니다. 주민들은 19세기에 정착한 유럽계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워싱턴 주의 교육과 산업의 중심 도시로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위치해 있으며 첨단기술과 바이오텍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21세기에 들어 워싱턴 주 정부에서 스포캔 시에 건설과 교육에 관련된 많은 투자를 하며 안정적인 중산층을 바탕으로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며 교육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Southside Christian School

Southside Christian School은 1994년 주정부에서 정식 승인, 운영되는 국제 기독교 학교 협회(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의 정식 회원이며, 미국 문교부 공인커리큘럼을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기간 동안 7명의 아이들이 이 곳에서 성공적인 스쿨링을 경험 하였고,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던 중은이는 지난 여름캠프에 참여 후 스포캔이 좋다며, 1월 말부터 사우스사이드 크리스찬 스쿨로 전학을 와서 하루하루를 재미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TWOWAY 미국 액티비티 이모저모

씨애틀에 다녀왔어요!

지난 1월 영화 '씨애틀의 잠못이루는밤' 으로 유명해진 미국 서부의 대표도시 씨애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보잉사 박물관 투어를 하며 전투기 조정석에 앉아보고, 씨애틀 퍼블릭 마켓에서 달콤한 캔디도 사고, 스타벅스 1호점 앞에서 사진도 찍었답니다. 여행으로 지친 아이들에겐 역시 맛있는 한국음식이 보약이라 점심으로 한식을 먹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스페이스 니들에 올라가 씨애틀 전경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도시에 익숙한 아이들에겐 생각보다 작은 도시였지만, 전망대에서 본 야경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멋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스키와 쇼핑

스포캔 시내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마운트 스포캔으로 스키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혼자서만 보드를 탔던 대건이, 초보자 치고는 넘어지지도 않고 잘 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쇼핑이 최고죠! 가끔씩은 필요한 물건이 없더라도 월마트를 방문하여 한국에 없는 신기한 물건들과 처음 보는 장난감과 과자들 구경하는 재미에 빠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고 합니다.

TWOWAY 유학 설명회안내

투웨이 유학원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논현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조기유학 동반유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 소: 투웨이 유학원 논현동 본사 세미나실
- 일 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 문 의: 02-3444-9090, 070-8692-9090

미국 관리형 조기유학 설명회 안내

- **설명회 일정**
  2013년 4월 19일(금) 오전 11시 / 오후 2시
  4월 20일(토) 오전 11시
- **설명회 장소 : 투웨이 유학원 서울 논현동 본사**
- **참가 문의 및 신청 : 02-3444-9090,**
  070-8692-9090

* 일정은 추후 변경가능하오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TWOWAY 유학원 동정

3월(March)

3/25 코록스 밸리 Youn Hee Edmonds 선생님한국 방문
3/30~31 서울 조기유학 및 영어학습 박람회 참가

4월(April)

4/19-20 투웨이 캐나다 미국 캠프 / 조기유학 설명회 개최
장소 : 투웨이 사무실

5월(May)

5/30-6/2 창원 영어체험 교육박람회 참가
창원(세코)

6월(June)

6/7 영식 (L.V.Rogers Secondary School) 졸업식
6/22 종훈, 영래 (Salmo Secondary School) 졸업식
6/23 미국 / 캐나다 여름방학 투웨이 학생 1차 귀국
6/25 미국 / 캐나다 여름방학 투웨이 학생 2차 귀국
6/28 예슬 (MR. Myers High School) 졸업식
6/29 예서 (Trafalga Middle School) 졸업식

7월(July)

7/20 여름방학캠프 출국 오리엔테이션
7/19 미국 / 캐나다 여름방학캠프 1차 출국
7/28 캐나다 여름방학캠프 2차 출국

8월(August)

8/21 여름방학캠프 참가자 귀국
8/30 미국 / 캐나다 조기유학, 단기스쿨링 학생들 출국